

이덕일의 ‘역사의 창’



조상의 음덕

“해동 육룡이 나르샤 일마다 천복(天福)이시니”로 시작하는 ‘용비어천가’는 “임금이 알으소서 낙수(洛水)에 사냥 가 있어 할아빌 민으리이까(125장)”로 끝난다. 마지막 장을 임금에 대한 경계로 끝마친 것은 의미심장한데, 이는 하(夏)나라 3대 임금 태강(太康)의 고사이다.

태강은 할아버지 우왕(禹王)의 손자라는 것만 믿고 정사는 소홀히 하고 사냥만 즐겼다. 낙수에 사냥 가서 백 일 넘도록 돌아오지 않자 유궁씨(有窮氏)의 제후인 예가 돌아오지 못하게 막았다. 요즘말로 하면 국왕을 탄핵시킨 것이다. 태강은 지금의 하남성(河南省) 주구시(周口市)의 태강현(太康縣)인 양하(陽夏)에 쫓겨나 10년 뒤 병으로 죽고 말았다.

태강의 다섯 동생들은 모친을 모시고 낙수 북쪽에서 우 임금의 혼계를 노래로 지어 불렀는데, 이것이 ‘서경’(書經) 하서(夏書)에 다섯 아들의 노래란 뜻의 ‘오자지가’(五子之歌)로 전해진다. 서장(序章)과 다섯 장의 노래로 구성되었는데, 서장에서 “태강은 하는 일 없이 자리만 차지

하고, 놀고 게으름만 피우며 덕을 망쳤네 / 백성들이 모두 두 마음을 먹었는데 / 즐기고 노는데 절도가 없었네”라고 한탄하고 있다. 1장은 “황조(皇祖)께서 유훈이 계셨으니 / 백성들은 가까이할망정 / 앞잡이 보면 안 된다 /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 근본이 굳세야 나라가 평안하다 / 내가 천하를 둘러보니 / 어리석어 보이는 사내와 아낙도 / 모두 나보다 훌륭하게 보였다. …… 어찌 위에 있는 사람이 /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내용이다.

5장은 쫓겨난 태강의 심정을 노래한다. “오호라, 어디로 돌아가겠는가? / 내 마음의 슬픔이여 / 만백성이 나를 원수로 아나 / 내가 장차 누구를 의지하겠는가? / 답답하고 슬프구나 이 내 마음이여 / 열굴은 붙어지고 부끄러운 마음이 생긴다 / 그분의 덕을 삼가지 못했으니 / 후회한들 쫓아갈 수 있겠는가?”

하(夏)나라는 서기 전 2000년 경부터 서기 전 1500여년 전까지 존속했던 나라로 추측하는데, 지금으로부터 4천여 년

전에 지어진 노래 가사가 마치 지금의 우리나라 정국 상황을 말하는 것처럼 생생하다. 만백성이 대통령을 원수로 아는 상황도 같은데, 그때와 다른 점은 이 상황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는 점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귀하게 자란 후예들이 비참한 지경에 처하는 예를 찾기 어렵지 않다. “귀한 자식 매 한 대 더 때린다”는 속담이 주는 교훈이 사라진 지 오래인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그렇다.

조선에서는 신숙주(申叔舟)의 아들 신정(申鼎)이 그랬다. 신숙주는 집현전 학사 출신으로 사육신과 달리 수양대군의 편에 섰기에 술한 비난을 받은 대신 인신(人臣)으로서 최고의 영화를 누렸다. 이런 집안에서 자란 신정은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고초를 몰랐다.

성종이 재위 4년(1473) 형조 담당 좌승지 신정에게 “요즘 죄수 중에 사형수가 많으니 국안(國案 : 수사 및 판결 기록)을 잘 살펴서 살릴 방도를 찾으라”고 명했다. 신정은 “감사와 수령이 이미 추안(推案 : 판결기록)을 만들었으니 신이 살릴

방도를 찾으려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신정은 사형수는 자신과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으로 생각해서 꼼꼼히 살필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신정은 성종 13년(1482) 고령현(高靈縣)의 부유한 사노(寺奴)를 빼앗기 위해 어보(御寶)를 위조했다가 발각되었다. 성종이 “죄를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친다면 살려 주겠다”고 했으나 끝내 부인하다가 사형당했다. 인조 때의 문신 이덕형(李德炯)은 ‘죽장한화’(竹窓閑話)에서 “(신정은) 어려서부터 귀하게만 자라 성질이 교만해 얼굴에 분한 기색을 띠고 한결같이 숨겼다”고 평했다.

지금 우리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인물들을 보면 대부분 정·재계의 2~3세들이나 이른바 소년등과(少年叢科)한 사람들이다. 세상은 이미 평등한 사회로 바뀌지 오래인데, 이들은 전 근대 사회에 머물러 있다 보니 세상과 맞지 않아 온갖 소동을 일으키고 자신들도 비참하게 되는 것이다.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

의료칼럼

당뇨환자의 봄방학



양 대 영
태영21병원장

당뇨 진단을 받으면 대부분 환자들은 먼저 주위 사람들로부터 지식을 얻는다. 어떤 질병이든 마찬가지지만 특히 당뇨병은 전문의와 상담하고, 치료 계획을 짜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하지만 주위에 당뇨병 환자가 많다 보니 도움을 주겠다고 정보를 주는 사람, 간섭하는 사람이 꽤 있어 원하는 원치 않든 다양한 치료법(?)을 알게 된다. 물론 그 효과는 장담할 수 없지만.

“당뇨병 별거 아니야. 몇 년이 지나도 멀쩡하잖아.” 귀에 솔깃한 말이다. “당뇨병은 밥만 덜먹으면 되는 거야.”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식탐을 이겨낼 수 있

을까 걱정은 된다. 이것 저것 실천해도 좋아지지 않으면 편법을 찾게 되는데, “당뇨병에는 돼지감자가 최고지.” “어제 밤 TV에서 당뇨병 완치약이 나왔더라.” 인터넷을 뒤져보지만 더 혼란스럽기만 하다.

당뇨병은 2015년 통계에 의하면 전 국민의 5%, 40대 이상 성인 10%가 당뇨병 있을 만큼 이제 흔한 질환이다.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에너지로 바꾸는데 필요한 효르몬이 바로 인슐린인데, 이 인슐린 작용에 문제가 생겨 포도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 당뇨병이다. 즉,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이 근육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로 사용돼야 하는데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아 포도당이 근육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에 그대로 남게 되어 혈당이 높아지고 당뇨병이 생기는 것이다.

오랜 기간 고혈당 상태가 유지되면 신체에서 여러 합병증이 발생한다. 가장 주의해야 할 합병증은 뇌졸중과 심근경색증, 협심증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이다. 이 심혈관계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

는 것이 혈당조절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다른 합병증인 투석과 같은 신장질환과 망막병증 역시 미세혈관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모든 합병증이 혈관의 문제인 것이다.

당뇨병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당뇨병의 전반적인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그간 수많은 당뇨병 치료제가 개발되고, 치료방법도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지만 24시간 내내 정상혈당을 유지하는 것은 아직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혈당조절이 잘 안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잘못된 식습관, 운동부족, 스트레스 등 생활 습관의 문제인 경우가 많다. 즉 생활 습관의 문제로 인해 당뇨병이 발생되고, 악화한다. 이중 식생활만 지혜롭게 바뀌도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고, 당뇨병 합병증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그런데 식이요법을 무시하고 당 조절을 하려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지나치게 식이요법에 신경쓰다 보면 사회생활에서 외톨이가 되기도 하고 주변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기도 한다. 잠곡밥만 고집하고 칼로리를 일일이 따져서 먹는가 하

면, 고기를 전혀 먹지 않아 무기력해진 상태로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다. 그럴 필요 없다. 우선 설당, 꿀, 음료수 등 당을 바로 올리는 것은 피하고 당분이 많은 과일(대부분의 과일이 당도가 많지만)을 줄이는 게 도움이 된다. 그 외 음식은 어떤 것이든 자유롭게 먹되 과식하지 않으면 된다.

그리고 봄방학이 있고 휴일이 있듯이 한 달에 한 두 번은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먹어 보는 당뇨 방학 혹은 당뇨 휴일을 가져 보는 것도 전반적인 당 조절에 나쁘지 않다.

다만 그런 날엔 한 두 시간 운동으로 칼로리를 소모해 빨리 정상 당으로 회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식이요법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365일을 철저한 혈당관리를 위해 모든 걸 절제만 하고 생활할 수는 없는 법이다. 자기만의 리듬을 갖고 식이 조절을 하되 본인의 혈당조절 능력과 합병증 유무를 담당 의사와 상의 후 본인에 맞는 생활 패턴을 가지는 것이 건강한 사회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하다.

기 고

지역경제 살리는 ‘조달청 여행상품’



박 정 한
광주시방조달청장

주말 저녁 TV를 보고 있노라면 유쾌한 젊은이들 몇 명이 우리나라 방방곡곡을 여행하며 숨은 명소를 소개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다. 무심히 보고 있다가도 어떤 때는 “와! 저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다니!”하는 탄성이 절로 나올 때가 있다. 요즘처럼 바쁜 세상에 여행할 시간도 없고 어찌다 한번 가는 여행, 너도나도 해외로 나가자는 세태지만 예로부터 삼천리금수강산이라 하지 않았던가.

제조업 주도의 고도 경제성장이 한계에 다다르고 여행 산업이 고부가가치 신산업 분야로 주목받으면서, 정부는 내수경기 회복의 한 수단으로 내국인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역마다의 특색 있는 관광 자원을 내세워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열심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앞서 말한 TV 프로그

램이 민간 영역에서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있다면, 공공 부문에서는 최근 조달청이 한 몫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조달청은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과 용역, 시설공사 계약을 주로 해 왔지만, 최근에는 지역 여행상품, 체험활동 등 서비스 상품 계약으로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조달청은 2015년부터 군산 ‘역사문화탐방’을 시작으로 지역의 특색 있는 여행상품과 유명 사찰의 템플스테이 같은 체험활동 상품을 개발해 계약 체결하고, 나라장터를 통해 공공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달청이 제공하는 여행·체험 서비스도 하나의 상품이므로,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으려면 공급자와 수요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상품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조달청과 지자체가 지역 관광 자원을 여행상품으로 발굴하여 계약 체결하고 나라장터에 등록해 놓으면 다른 공공기관에서 구매·이용할 수 있으므로, 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수요자는 각각의 공공기관이다.

먼저, 공급자인 지자체 입장에서 조달청과 여행상품 계약은 장사로 치면 매우 ‘남는 장사’라고 할 수 있다. 본래 가지고 있던 관광 자원을 그대로 상품화하는 것

이어서 별도 비용이나 인력이 필요 없고, 홍보 효과는 크기 때문이다. 종종 TV나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지자체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광고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될 터이지만, 나라장터에 등록된 여행 상품은 조달청이 언론 보도를 통한 홍보도 해주고 각 공공기관에 구매 요청 공문도 보낸다. 2015년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군산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은 ‘16년 10월 기준, 학교단체 관광객 수가 2만 명을 넘어서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아울러, 지자체는 조달청과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지역 관광 자원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고,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관광 상품을 개발할 수도 있게 된다.

수요자인 각 급 학교나 공공기관 입장에서선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과 위생을 책임지기 때문에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여행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또, 계약을 체결하는 지자체들이 수익성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고, 대부분의 조달청 여행 상품에는 전문 해설사가 포함되어 있어 교육적 효과도 높다. 수학여행, 체험학습, 공공기관 워크숍, 체육행사 등 활용범위가 다양하고,

복잡한 계약 절차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여행·관광 산업은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산업이다. 한국관광공사의 조사에 따르면 제조업 대비 약 2배, 전 산업 평균 대비 약 1.4배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다고 한다. 쉽게 말하면 관광객이 많이 오는 지역은 일자리도 많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특히 인구 유출이 많아 특단의 인구 증가 대책까지 세우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자치단체에서는 관광 산업 활성화로 일자리와 소득이 늘어나면, 저절로 인구가 유입되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나라 전체적으로는 해외 관광에 따른 자본 유출을 막고 국내 소비 증가, 실업률 감소로 이어지며 크게는 지역 균형 발전에도 이바지 할 수 있다.

특히 우리 지역은 과거 산업화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으나 이제는 전하위복이 되어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가장 잘 유지·보존되어 있는 지역으로 꼽힌다. 여기에 남도의 맛과 멋, 그리고 훌륭한 전통문화까지, 우리가 자랑스럽게 보여줄 것들이 너무도 많다. 지방조달청장이기에 앞서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써, 우리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달청 여행 상품 계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란다.

社 說

태극기가 분열의 정치적 도구로 사용돼서야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기는 3·1 독립운동은 물론 8·15 광복, 한국전쟁,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현대사의 고비 고비마다 항상 민족과 함께했다. 국가와 민족을 사랑했던 순국선열, 그리고 진정한 애국자들을 향한 감사를 담아 국민은 매년 3·1절 등 국경일에 태극기를 게양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다르다. 태극기 게양을 꺼리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극우보수단체들이 ‘태극기 집회’에 나서면서 태극기 게양이 자칫 탄핵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비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매년 삼일절을 앞두고 ‘태극기 달기’ 운동이나 ‘태극기 나눠 주기’ 행사를 펼쳤던 지자체들은 행사를 취소하거나 축소하고 있다. 실제로 광주시는 3·1절을 앞두고 태극기를 나눠 주지 않기로 했다.

학생들에게 3·1절 기념행사에 참가해 태극기를 흔들며 ‘나라사랑 실천’

봉사활동에 나설 것을 권유했던 각급 학교도 올해는 그다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태극기 물결을 주도했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올해는 국기 게양 안내 방송에 나서지 않은 곳이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98년 전 3·1 독립운동 당시 온 민족을 하나로 묶었던 태극기가 극우보수단체들이 집회 도구로 사용하면서 그 숭고한 의미가 훼손당하고 있는 셈이다. 보다 못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시회 도구로 태극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담은 ‘대한민국 국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태극기는 어느 한쪽의 상징이 아니라 온 국민의 것이다. 외세에 맞서 죽음을 불사하고 흔들었던,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외치며 내걸었던 태극기를 더 이상 정치적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는 순국선열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다.

여수해상케이블카(주) 기부금 약속 지켜라

매년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여수해상케이블카(주)가 정작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기부금 협약을 지키지 않고 있어 지역사회의 비난이 일고 있다. 기부금은 당초 업체가 운영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입장권의 매출액 일부를 지역사회에 돌려주기로 한 협약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최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여수시가 해상케이블카업체를 상대로 “3% 기부금 약정을 이행하라”며 제기한 ‘채소 전 화해에 근거한 간접 강제’ 신청 사건에서 “지난해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유료 입장권 매출액의 3%를 기부금으로 내라”고 결정했다.

이후 임시운영 허가를 받은 해상케이블카는 지난 2014년 12월~2015년 말까

지 첫째 매출액 270억 원에 이르는 대박을 냈다. 하지만 업체는 2015년분 기부금 8억3379만 원에 대해서는 약속대로 납부했지만 전남도에서 정식 운행허가를 얻은 지난해 5월 말 이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 여수시의 설명이다.

그동안 여수해상케이블카가 대표적인 관광상품으로 자리를 잡게 되니까 시민들의 협조가 큰 힘이 됐다. 시민들은 여수해상케이블카 운행 이후 극심한 교통난에 시달리면서도 업체의 기부금이 지역발전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모든 불편을 감수해 왔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업체가 돈벌이에만 급급해 시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서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물론 업체는 “법원 판결 이후 진행 허가를 앞두고 여수시와 ‘유료 입장권 매출액의 3%를 공익 기부한다’는 약정을 체결했다.

無 等 鼓

“광주시청에 소녀상이 있는 줄 몰랐네요.” 며칠 전 아는 이가 이렇게 말했다. 아이와 함께 야간에 광주시청 광장 야외 스카이트장에 갔다 시민의 숲에서 ‘평화의 소녀상’을 발견한 모양이었다. 꼭 자신의 키만 한 소녀상을 한참을 들여다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했다.

광주의 소녀상은 앉아 있는 다른 지역 소녀상과 달리 곳곳이 서 있다. 하늘 어딘가를 쳐다보는 듯한 슬픈 농망울과 앞으로 뻗은 손 위에는 나비가 앉아 있는 모습이다. 지난 2015년 세워진 소녀상은 ‘착한사람들의 모임’ 등 시민 1300여 명이 2300만 원을 모금해 세웠다. 올해부터는 광주시가 소유권을 넘겨받아 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직접 관리하게 됐다.

최초의 ‘평화의 소녀상’은 1992년부터 매주 일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한 수요집회가 열리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 있다. 2011년 수요집회 1000회를 기념해 한복을 차려입은 단발머리 소녀상을 제작한 게 처음이다. 소녀의 어깨 위 작은 새는 자유와 평화를, 맨발은 소녀의 험난한 삶과 여정을 상징한다.

평화의 소녀상은 현재 전국적으로 70여 개에 달한다. 지난해 말에는 광주 성덕고 학생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학교에 소녀상을 세웠다. 진해의 한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소녀상이 세워졌다. 서울도 전국 곳곳에서 소녀상 제작식이 열렸다. 여수에서는 1만여 명이 9800여만 원을 모금해 소녀상을 세웠다. 안산과 평택에서도 제작식이 개최됐다. 광주에서는 ‘일본군 성노예 생존자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광주나비’가 출범했다. 회원들은 4월부터 첫 번째 수요일 정보마다 광주시청 앞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서 정기 수요집회를 진행한다.

3·1절 아침, 출근길에 소녀상을 만나고 왔다. 초록색 모자를 쓰고 노란색 목도리와 털로 짠 노란 가디건에 분홍방어리 장갑을 목에 건 소녀가 서 있다. 맨발의 발등이 추위 보였는지 누군가 무릎까지 올라오는 노란 양말도 신겨 주었다. 산책을 하던 중년부부가 소녀상을 쓰다듬으며 한참을 있다가 떠났다.

조금 있으면 꽃피는 봄이다. 그때 그 소녀들의 마음에도 따뜻한 봄바람이 불면 좋겠다. /김미은 문화1부장 mekim@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시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